

# ‘계란 봉변’ 박지원 “내가 맞아서 다행”

### 목포서 DJ마라톤대회 개막행사 참석 도중 60대女 항의 받아 “소란 발생해 송구”...나주 등 전남 일원 행사 방문 일정 취소



10일 오전 목포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일원에서 열린 제1회 김대중 마라톤대회 출발 지점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한 시민이 던진 계란을 맞은 뒤 후자를 건넌 채로 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10일 지역 주민으로 보이는 60대 여성에게 계란을 맞은 등 거센 항의를 받았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일대에서 열린 제1회 김대중마라톤대회 개막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이회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축사를 대독한 뒤 출발 신호 단추를 누르기 위해 다른 귀빈들과 신호석으로 서있는 순간 60대 여성이 신호석 뒤편에서 다가가 계란을 던진 것이다. 이 여성은 계란을 던진 후 박 전 대표에게 다가가 “병흔과 양심까지 팔았느냐”며 “나는 한때 박지원씨를 존경했다. 최근 너무나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대표에 따르면 이 여성은 최근 논란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도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이 여성이 던진 계란이 오른쪽 어깨를 빗맞고 터지면서 얼굴과

어깨 주변이 계란 범벅이 되는 봉변을 당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손수건을 이를 닦아낸 뒤 행사장을 지켰다. 그는 마라톤에 참석한 안철수 대표가 출발선을 출발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기자들에게 웃으며 “내가 맞아서 다행이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박 전 대표 옆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등 내외빈이 있었다. 박 전 대표는 김대중마라톤대회 이후 전남 일대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경찰의 피해자 조사 참석을 위해서다. 한편, 박 전 대표는 봉변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출발 버튼을 누르는 대열에 서 있는 순간 한 여성분

이 달걀을 제 얼굴에 투척했으나 저는 아무런 상처도 없고 달걀을 닦아내고 행사를 무사히 마쳤다”며 “저는 목포에서 여는 대회가 무사히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라며 차라리 제가 당한게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 여성 분은 투척 후 저에게 박지원씨를 평소 존경했지만 최근 너무나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과 ‘비자금 운운 했다’지만 구체적 내용은 현재 그 분이 목포경찰서에서 조사 중이기에 파악이 못했다”며 “그 분은 광주 안철수연대 팬클럽 회장이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전 대표는 “저도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라 통보 받았다”며 “사소한 소란이 목포에서 발생한 데 대해 국민과 목포 시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나주시 등 오늘 전남 일원 행사 방문 일정을 취소한다”고도 말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홍문종(왼쪽),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손이 잡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하고 홍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 자유한국당 ‘친박계’ 원내대표 후보 홍문종으로 단일화...유기준 불출마

유기준(4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에 도전할 ‘친박(친 박근혜)계’ 단일 후보는 홍문종(4선) 의원으로 결정됐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의원과 원내대표 출마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며 “저는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랜기간 의정활동을 해오며 지켜봐 온 홍 의원의 원내대표가 될 훌륭한 자질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도 절친한 인생의 선배이고 동료 의원들로부터도 신망이 두텁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경선에는 출마하지 않지만 절제절명의 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며 “제 선택이 당의 화합과 통합에 큰 힘이 되길 바라고 저도 이를 위해 역량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리를 함께 한 홍 의원은 “당 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선 손을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심고쳐려 끝에 유 의원께서 제가 경선에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주기로 하셨다”며 “유 의원과 함께 당의 미래 그리고 한국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스

## 안희정 “올 연말이나 연초에 거취 밝힐 것”

안희정 충남지사는 8일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연말이나 연초에 따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세전년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분권-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길’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강연에서 “지방자치는 주권재민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며 지방분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회에서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 한 것에 대해 “여야 모든 대신 후보들이 공통으로 약속했던 게 자치분권 개혁이었다”며 “그 약속을 여야 대표들과 지도자들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 등 여러 문제를 풀기 위해 원대로 들어와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는 질문에 안 지사는 “개인 거취에 대해서는 연말 연초 즈음에 따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 목포 찾은 안철수, DJ ‘인동초 정신’ 강조

### “멀리 있는 목표보다 한걸음씩 쌓아가다보면 도달”



10일 오전 목포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일원에서 열린 제1회 김대중 마라톤대회 5km 구간에서 참여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아내 김미경 교수가 출발점을 지나 달리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목포시에서 열린 김대중마라톤대회에 참석해 김 전 대통령의 ‘인동초 정신’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앞에서 진행된 김대중마라톤 대회 출사에서 “김 전

대통령과 마라톤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외국에서는 오래 달리기를 엔듀런스 러닝(endurance running)이라고 한다. 엔듀런스는 인내하다, 러닝은 땀다는 뜻이다. 인내하고 뛰는 것이 마라톤의 본질”이라며 “인동초가 무엇인가. 참을 인(忍), 겨울 동(冬), 겨울을 참고 인내하면서 지내 봄이 오면 꽃을 피운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쩌면 그 의미가 다 깊은 연관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참고 인내하는 마라톤, 그리고 인동초”라며 “전 제 집 옆에 5~6km 아침마다 뛰고 있다. 그렇게 자주 뛰는데도 처음 땀 때 참 괴롭다. 멀리 목표가 보이는 데 아무리 뛰어도 가까워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럴때면 전 멀리있는 목표가 아니라 제 발 앞을 본다. 제 발 보고 뛰다보면 한걸음 한걸음 묵묵히 참고 하나하나 쌓아가다보면 어느새 목표에 도달한다”며 “그게 마라톤 교훈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 재보선 출마설에 박원순 “여의도가 전부 아냐”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내내 재·보궐선거 출마설과 관련해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가 꼭 여의도식 정치만은 아닐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가회동 시장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각종 출마설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해야 성과가 난다”며 이같이 답했다. 우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원직을 던진 서울 노원병과 같은 당 최명길 전 의원 지역구인 송파를 재·보선 출마로 국회에 입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엔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정치인으로서

변화는 참 좋은 것 같다”면서도 “기존의 정치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남지사 차출설을 두고는 “경남지사 얘기가 왜 자주 나오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다만 직접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서울시장 3선 도전 의사를 묻자 말을 아꼈다. 박 시장은 “제가 지금 3선에 대한 태도를 밝히면 어쨌든 서울시장이 공직사회가 선거 분위기로 많이 들어가 버릴 것”이라며 “중요한 일을 내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면에서 선거 분위기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무료상담환영”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